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김 후 경 이 순 철* 오 주 석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상실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 사람, 소유 혹은 생각을 박탈 당하는 것으로 일생에 있어 불가피한 경험이며, 특히 고령자의 특성상 이와 같은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 즉 상실감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지만, 이를 원활히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상실감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고령자의 자아통합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9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상실감의 요인은 '경제적 상실', '사별 상실', '건강 상실', '관계의 상실'로 구분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통합감의 요인들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상실'로 인한 상실감은 '죽음에 대한 수용'과 '노령에 대한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아통합감 하위요인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건강 상실'과 '관계의 상실'도 각각 '노령에 대한 수용'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생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령자 상실감 척도의 '사별 상실' 요인과 자아통합감의 '죽음에 대한 수용' 요인은 모든 분석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주요어 : 고령자, 상실감, 자아통합감

* 교신저자 : 이순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E-mail : snchul@chungbuk.ac.kr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총인구의 7.2%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다. 통계청(2005, 2006)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국내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인구의 9.5%로, 지난해의 9.1%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이와 같이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역할상실과 경제적 빈곤, 신체 질병,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및 소외감, 우울 등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준비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자의 삶의 질을 다룬 여러 연구(박영신, 김의철, 2006; 서경현, 2006;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한덕웅, 2006; 한창수, 2005) 등에서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경제적 요인이며, 인생의 어떤 시기보다 노년기의 경우 원만한 인간관계와 정서적 지

원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았다. 노년기는 신체기능 약화로 건강수준이 낮아져 질병과 죽음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고, 자녀의 출가나 직장에서의 은퇴와 같은 사건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변화, 역할 상실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주관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이처럼 노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 및 건강상태의 약화 등과 같은 일련의 상실경험으로 인하여 심리적·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시기인 만큼, 고령자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고령자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상실감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실’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 사람, 소유 혹은 생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표 1. 연령계층별 구성비 변화추이

(단위 : %)

	1980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0~14세	34.0	21.1	18.6	16.3	13.0	11.6
15~64세	62.2	71.7	71.9	72.8	72.6	67.5
65세이상	3.8	7.2	9.5	10.9	14.3	2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상실’은 생리적 상실과 심리적 상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리적인 상실은 신체의 기능이나 일부분 혹은 전체를 잃는 것을 말하며, 심리적인 상실은 실직, 이혼, 지위의 상실 등을 의미한다(노유자, 한성숙, 김춘길, 안성희, 1994).

James와 Friedman(2004)은 이와 같은 상실로부터 느끼게 되는 부정적 정서인 ‘상실감’에 대해 “익숙한 행동방식이 변화하거나 끝나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모순적인 감정이며, 이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은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였다.

이런 상실의 경험을 겪으면 우리는 상실감을 느끼며 슬퍼하게 되는데, ‘상실감’을 좀 더 자세히 정의하자면, 중대한 상실경험에 이어 일반적으로 따라오는 심한 정서적인 고통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Ferszt & Leveille, 2006). 상실감은 다양한 감정이 드는 복합적인 감정상태로서 무력감, 슬픔함, 죄의식, 분노, 불안, 피로, 무감각, 우울, 좌절, 식욕상실, 심계항진, 실폐감, 실망감, 울기, 수면장애, 물질 사용 등 느낌, 신체적 감각, 인지, 행동의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반응이 포함된다(Worden, 1991).

고령자들의 경우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 및 친구와의 사별, 건강상태의 악화, 자녀의 출가 등 개인적인 혹은 사회관계적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실로 사회적 활동과 대인과의 상호작용이 감소하여 공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들을 큰 상실감으로 이끈다. 이러한 상실감은 고령자들에게 심리적인 부적응을 초래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누구나 한번은 겪을 수 있는 이러한 상실사건들을 겪었다고 해서 모두 깊은 상실감에 빠지

는 것은 아니다. 비록 상실 후에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와 같은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 혹은 해결하는가이다. 만약 상실감을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슬픔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를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인생의 경험을 제한하게 되어 앞으로 맺을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신을 더욱 고독감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 (James et al, 2004).

이신숙과 이경주(2002)에 의하면 상실감요인은 고령자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사건에서 경험빈도가 적으나 그러한 일상적 사건이 가져다주는 스트레스 지각의 양은 상실감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상실은 고령자들의 전반적인 기능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고령층에서는 심한 정신증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기질적 원인보다 신체적 변화에 따른 상실감, 사별로 인한 감정적 상실감, 수입의 저하와 역할의 상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상실감이 더 많은 요인이 된다. 즉, 노인 정신질환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복합요소에 의해 발생한다(박선아, 1997).

노년기에는 필연적으로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실감은 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고령자의 자아통합감

Erikson의 이론이 발표된 이래, 자아통합은 고령자의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심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인 노화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어왔다(홍현방, 2002).

Erikson은 노년기에 수행해야할 주요한 발달 과제를 자아통합으로 보았다. 자아통합에 이른다는 것은 외부세계와 자신 내면에 있는 결함들, 고통스런 감정의 근원들과 화해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노년을 쓸쓸함이나 절망감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죽음과도 타협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김애순, 2004).

또한, 최근 노인의 자아통합 개념분석연구(장성옥, 공은숙, 김귀분,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김희경, 송미순, 안수연, 이경자, 이영희, 전시자, 조남옥, 조명옥, 최경숙, 2004)에서도 고령자들이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생을 재해석함으로써,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주변여건에 감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변인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제약을 초월하여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또 윤진(1985)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자기의 지나간 인생 경험에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그 동안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며, 자신이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왔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 자아통합감의 달성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통합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Levinson, 1996).

노년기에는 대부분 한두 가지의 질병이나 가벼운 손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보통이며, 배우자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하는 시기이다(김애순, 2004). 이를 고려한다면 우울, 죽음 불안, 사회적 활동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상실감 역시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족스런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으로 고령자의 안녕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실감이 고령자의 심리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고령자의 상실감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는 고령자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상실, 목회상담과 스트레스의 하위 문제로써의 상실 등을 파악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또한 현재까지 노인의 부적응 정서를 측정하는 도구로 노인우울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Korea Version ; GDS-K)와 노인 스트레스 측정 도구(Seo's Elderly Stress Scale ; SESS)는 개발되어 있으나, 노인 정신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상실감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는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들에 대한 상실감과 자아통합감과의 관계분석을 통해 상실감이 노년기의 자아통합감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고령자 상실감 측정을 위한 질문지를 제작하여 고령자가 지각하고 있는 상실감의 하위요인들이 무엇인지, 각 요인들 간에는 어

면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 상실감의 각 하위요인들이 자아통합감 및 자아통합감의 하위요인들과 가지는 관계의 성격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방 법

조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120명의 자료 가운데 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들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97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를 위해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조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과정에서는 시력이 약한 조사대상자를 위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응답을 받아 적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 전체 97명 가운데 남성이 49명(51%), 여성이 48명(49%)이었으며, 이들의 평균연령은 69.85세($SD=3.84$)였으며, 연령분포는 최소 65세부터 최고 83세까지

였다. 연령을 세부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65세~69세가 44명(45.4%), 70세~74세가 42명(43.3%),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11명(11.3%)으로 대다수의 조사대상자들이 65세~74세 사이에 분포하였다(표 2).

도구 및 절차

고령자 상실감 척도 질문지

노년기 단계에서 경험하는 고령자의 상실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조사의 실시 이전에 만 65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1:1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마련된 개념과 경험적 연구 자료에 준하여 사별, 경제적 상실, 건강 상실, 사회적 역할상실, 대인관계 상실 등 상실감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면담은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면담에서 추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선정된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해 문장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42개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고 각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를 1점~5점의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선정된 42개 문항 가운데 전체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과 각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선별 후 제거하여 최종적인 고령자 상실감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통합감 척도

자아통합감 척도는 김정순(1988)이 개발한 것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

표 2.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변인	집단	빈도(%) (n=97)	M	SD
성별	남	49(51)	-	-
	여	48(49)		
연령	65-69세	44(45.4)	69.85	3.84
	70-74세	42(43.3)		
	75세 이상	11(11.3)		

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8 문항, ‘지체로운 삶’ 7문항, ‘생애에 대한 태도’ 6문항, ‘죽음에 대한 수용’ 3문항, ‘노령에 대한 수용’ 4문항,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3 문항 등 총 31문항이며, 6개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자아통합감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 .88로 높게 나타났다.

결 과

고령자 상실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고령자의 상실감 척도 20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는 주축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직접 오블리민 방식을 사용하였다.

상실감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실감 척도는 총 4개 요인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82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감 척도를 각 요인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먼저, 첫 번째 요인은 ‘경제적 상실’로,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수입에 문제가 있는 경우 느끼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상실’ 요인은 전체변량 가운데 24.15%를 설명하고 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사별 상실’로, 배우자나 그 외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등과 사별을 경험한 이후 가지게 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질문들

로 구성되었다. ‘사별 상실’은 전체변량 가운데 13.22%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가 .79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건강 상실’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상실, 즉 자신의 건강상태가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느낌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의 전체변량 가운데 설명량은 8.85%였으며 Cronbach's α 는 .74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 요인은 ‘관계의 상실’로, 이는 가정 안에서의 지위상실 혹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구성원들과의 거리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를 묻고 있다. 고령으로 인한 가정 안에서 역할의 변화가 언제나 지위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고령자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전체 변량 가운데 8.17%를 설명하고 있으며, Cronbach's α 는 .67로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사전조사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마련된 개념과 경험적 연구 자료에 준하여 ‘사별’, ‘경제적 상실’, ‘건강 상실’, ‘사회적 역할상실’, ‘대인관계 상실’ 등 상실감을 5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나 본 조사의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역할상실’과 ‘대인관계의 상실’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져 ‘경제적 상실’, ‘사별 상실’, ‘건강 상실’, ‘관계의 상실’의 총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고령자 상실감 척도 각 요인간 상관 및 자아통합감과 상관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고령자 상실감 척

표 3. 고령자 상실감척도 요인분석 결과(회전된 성분요인)

문항	내 용	주요인 적재치 (Primary factor loading)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8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비관스런 생각이 든다.	.898			
7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슬픈 느낌이 든다.	.805			
6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좌절감이 든다.	.785			
17	나는 사별 후 울고싶을 때가 있다.		.718		
19	나는 사별 후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649		
15	나는 죽은 사람을 몹시 그리워한다.		.602		
20	나는 사별 후 기운이 빠져 힘들다.		.600		
16	나는 사별 후 잠을 이루지 못한다.		.597		
18	나는 사별 후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464		
3	나는 몸이 아프면 좌절감을 느낀다.			.618	
4	나는 몸이 아프면 세상만사가 귀찮다.			.605	
5	나는 건강한 사람을 보면 부럽다.			.568	
1	나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에 대해 불안하다.			.514	
2	나는 몸이 아프면 슬픈 느낌이 든다.			.489	
10	나는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다.				.672
11	나는 가족들이 내 말을 무시한다고 느낀다.				.655
13	나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				.476
12	나는 가까운 사람들 (예: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과 사이가 좋다.(R)				.466
9	나는 가정 내에서 내 지위가 낮아진다고 느낀다.				.435
14	나는 자녀들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편치 않다.				.357
고유치		4.83	2.64	1.77	1.64
설명변량(%)		24.15	13.22	8.85	8.17
Cronbach alpha		.92	.79	.74	.67

주. 요인1: 경제적 상실, 요인2: 사별 상실, 요인3: 건강 상실, 요인4: 관계의 상실, (R): 역채점 문항

도의 4개 요인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상관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인 ‘경제적 상실’ 요인은 ‘사별 상실’($r=.29$)과 ‘건강 상실’($r=.35$), ‘관계의 상실’($r=.24$)의 나머지 세 요

표 4. 고령자 상실감척도의 요인 간 상관

	경제적 상실	사별 상실	건강 상실	관계의 상실
경제적 상실	1			
사별 상실	.29**	1		
건강 상실	.35**	.10	1	
관계의 상실	.24*	.05	.19	1

* $p < .05$. ** $p < .01$. (이하 생략)

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능력 상실의 부분에 대해 부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고령자 일수록 사별 이후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많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의 가정내 지위가 상실되었고 가족관계도 원만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제적 상실’ 요인이 나머지 요인들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나머지 세 요인들은 서로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별 상실’과 ‘건강 상실’, 그리고 ‘관계의 상실’이 서로 고령자의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의 독립적 측면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고령자 상실감 척도의 각 요인들은 상실경험의 원인에 대하여서는 각기 독립적인 측면들을 대변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실경험으로 인한 공통적인 부

정적 정서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고령자 상실감 척도 각 요인과 자아통합감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요인에 대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먼저, 상실감 척도 가운데 ‘경제적 상실’ 요인은 자아통합감 구성요소 가운데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r = -.56$), ‘지혜로운 삶’($r = -.43$), ‘생에 대한 태도’($r = -.47$), ‘노령에 대한 수용’($r = -.27$),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r = -.31$)의 5개 요인들과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능력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강할수록, 현재생활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포함한 자신의 생애 전반과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별 상실’은 자아통합감 요인 가운데,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r = -.28$)과 ‘생에 대한 태도’($r = -.29$)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별로 인한 상심을 크게 느끼는 고령자일수록,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덜하며 자신의 남은 생애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별 상실’ 요인은 ‘지혜로운 삶’, ‘죽음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요인들

표 5. 상실감 하위 요인과 자아통합감 척도 간의 상관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지혜로운 삶	생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	노령에 대한 수용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경제적 상실	-.56 **	-.43 **	-.47 **	-.14	-.27 **	-.31 **
사별 상실	-.28 **	-.06	-.29 **	-.03	-.12	.01
건강 상실	-.29 **	-.37 **	-.34 **	-.01	-.46 **	-.26 *
관계의 상실	-.34 **	-.22 *	-.37 **	-.06	-.23 *	-.22 *

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실’은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r=-.29$), ‘지혜로운 삶’($r=-.37$), ‘생애에 대한 태도’($r=-.34$), ‘노령에 대한 수용’($r=-.46$) 및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r=-.26$)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건강상의 이유로 상실감을 느끼는 정도가 큰 고령자일수록 과거와 현재의 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관계의 상실’도 ‘경제적 상실’ 및 ‘건강 상실’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수용’을 제외한 자아통합감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r=-.34$), ‘지혜로운 삶’($r=-.22$), ‘생애에 대한 태도’($r=-.37$), ‘노령에 대한 수용’($r=-.23$), 그리고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r=-.22$)의 5개 요인들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자신과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고령자일수록 자신의 과거 및 현재생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남은 일생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 상실감이 고령자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고령자의 상실감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상실감 척도의 하위 요인들이 자아통합감에 대하여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실감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표 6).

그 결과, 상실감 척도의 요인들이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의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4, 90)}=16.179, p<.001$), 이 회귀방정식은 전체 자아통합감의 41.8%(수정된 값 39.2%)를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상실’($t=-4.506, p<.001$)과 ‘건강 상실’($t=-2.633, p<.01$), ‘관계의 상실’($t=-2.553, p<.05$)이 자아통합감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별 상실’ 요인은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합하면, 경제적 능력의 상실과 건강상의 문제,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에 기인한 부정적 정서가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실감 척도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이 자아통합감 요인 가운데

표 6. 상실감 요인에 따른 ‘자아통합감’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1.878	-.409	-4.506 ***	16.179 ***
사별 상실	-.158	-.068	-.804	
건강 상실	-.878	-.227	-2.633 **	
관계의 상실	-.719	-.214	-2.553 *	
회귀상수=149.753				
$R^2=.418$		수정된 $R^2=.392$		

*** $p < .001$. (이하 생략)

표 7. 상실감 요인에 따른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701	-.432	-4.588 ***	13.306 ***
사별 상실	-.109	-.132	-1.515	
건강 상실	-.108	-.080	-.888	
관계의 상실	-.251	-.212	-2.430 *	
회귀상수=39.922				
$R^2=.372$		수정된 $R^2=.344$		

데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상실감 척도의 요인들이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4,90)}=13.306$, $p<.001$), 이 회귀식은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의 37.2%(수정된 값 34.4%)를 설명하고 있다(표 7).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상실'($t=-4.588$, $p<.001$)과 '관계의 상실'($t=-2.430$, $p<.05$)이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별 상실'과 '건강 상실' 요인은 자아통합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경제적 능력의 상실과 가족구성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등에 기인한 부정적 정서가 고령자들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 정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감 척도의 하위요인이 자아통합감 요인 가운데 '지혜로운 삶'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R^2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_{(4,90)}=7.782$, $p<.001$), 이 회귀식은 '지혜로운 삶' 요인의 25.7%(수정된 값 22.4%)를 설명하고 있다(표 8).

세부적으로는 '경제적 상실'($t=-3.418$, $p<.001$)과 '건강 상실'($t=-2.500$, $p<.05$)이 '지혜로운 삶' 요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별 상실' 요인과 '관계의 상실' 요인은 '지혜로운 삶'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경제적 능력의 상실과 신체적 질병 및 노화로 인한 건강 상실에 대해 고령자가 느끼는 부정적 정서가 고령자들의 자

표 8. 상실감 요인에 따른 '지혜로운 삶'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437	-.350	-3.418 ***	7.782 ***
사별 상실	-.047	.073	.774	
건강 상실	-.256	-.244	-2.500 *	
관계의 상실	-.076	-.084	-.884	
회귀상수=33.738				
$R^2=.257$		수정된 $R^2=.224$		

표 9. 상실감 요인에 따른 '생에 대한 태도'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411	-.306	-3.172 **	11.758 ***
사별 상실	-.117	.170	-1.906	
건강 상실	-.193	-.171	-1.866	
관계의 상실	-.240	-.244	-2.738 **	
회귀상수=32.391				
$R^2=.343$		수정된 $R^2=.314$		

아통합감 가운데 '지혜로운 삶'요인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합감 가운데 '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자 상실감 요인은 '경제적 상실'과 '관계의 상실'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상실감 요인들이 '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의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_{(4,90)}=11.758$, $p<.001$), '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변량 가운데 34.3%(수정된 값 31.4%)를 설명하였다. 세부적으로 네 개의 상실감 요인 가운데 '경제적 상실'($t=-3.172$, $p<.01$)과 '관계의 상실'($t=-2.738$, $p<.01$)이 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제적 능력 상실과 가정 안에서의 지위상실 및 구성원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는 고령자의 생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자의 상실감 요인이 자아통합감의 '노령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에서는 '건강 상실'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표 10). 이 회귀식의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_{(4,90)}=6.866$, $p<.001$), 고령자의 '노령에 대한 수용'의 23.4%(수정된 값 20%)를 설명하고 있다. 상실감 요인들 가운데 '건강 상실' 요인만이 '노령에 대한 수용'에 유의한 영향($t=-3.91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는 자신의 건강문제로 인한 부정적 정

표 10. 상실감 요인에 따른 '노령에 대한 수용'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060	-.077	-.736	6.866 ***
사별 상실	-.018	-.046	-.477	
건강 상실	-.255	-.388	-3.914 ***	
관계의 상실	-.081	-.142	-1.478	
회귀상수=18.798				
$R^2=.234$		수정된 $R^2=.200$		

표 11. 상실감 요인에 따른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의 중다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B	β	t	F
경제적 상실	-.173	-.267	-2.455 *	4.358 **
사별 상실	.037	.111	1.103	
건강 상실	-.099	-.182	-1.758	
관계의 상실	-.051	-.109	-1.078	
회귀상수=13.849				
$R^2=.162$		수정된 $R^2=.125$		

서가 강할수록, 더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혹은 두려움을 가지기 쉽다.

고령자의 상실감 요인들이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에서 R^2 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_{(4,90)}=4.358, p<.01$), 이 회귀식은 고령자의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정도를 설명하는 변량 가운데 16.2%(수정된 값 12.5%)를 설명하고 있었다(표 11). 고령자의 상실감 요인들 가운데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상실'($t=-2.455, p<.05$)이 유일했다. 고령자들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 혹은 이와 관련한 걱정 등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클 경우 자신의 지나온 일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자의 상실감 척도의 요인들이 자아통합감 요인 가운데 '죽음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회귀선은 유의한 통계치를 보이지 않아, 각 상실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고령자들의 '죽음에 대한 수용'과 관련한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상실의 경험 이 고령자 삶의 질, 세부적으로는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상실 경험의 원인별 부정적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령자의 상실경험은 넓은 의미에서는 고령화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는 경제사회에서 개인의 상대적 생산능력 혹은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제적 능력을 떨어뜨리고, 신체 약화를 야기 시키며,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점차 많이 경험하게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실감 척도에서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 '경제적 상실', '사별 상실', '건강 상실' 그리고 '관계의 상실'은 광범위한 시각으로 본다면 고령화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고령자의 상실경험이 필히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고령화 과정 중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실경험이 야기하는 부정적 정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결과에서 본 것처럼, 고령자의 상실경

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자아통합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고령자의 ‘경제적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가 자아통합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은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넓히는 수단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더 나아가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혹은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의 경제적 능력이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고령자에게 경제적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건강상태와 가족관계이다. 먼저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본 연구에서 ‘건강 상실’ 요인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건강 상실’로 인한 부정적 정서는 고령자의 ‘노령에 대한 수용’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한 고령자는 ‘나이가 들어 늙어 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반면, 건강하지 못한 고령자의 경우 자신의 고령화가 걱정 대상이 되며 이는 심리적 안녕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계의 상실’요인은 고령자의 현재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자신의 현재까지의 일생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계의 상실’ 요인은 ‘경제적 상실’이나 ‘건강 상실’처럼 물리적 조건에 좌우되기 보다는 심리적 조건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많은 경우가 ‘실제적인’ 상실보다는 고령자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관계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지위변화를 “식구들이 나를 무시한다”던가 혹은 “자식들이 나를 귀찮아한다”고 생각

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생의 과정으로 보고 적절히 대처하거나, 가족을 벗어난 사회적 범위에서의 새로운 관계성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별 상실’은 전체적으로 자아통합감에 대하여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가능한 가설은 질문 작성 당시 고려하였던 사별의 대상범위이다. 본 조사를 위해 사별에 관한 질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사별의 대상을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친지 및 친구관계로 한정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별대상의 넓은 범위가 ‘사별 요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한 후 느끼는 부정적 정서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와 사별한 경우 느끼는 부정적 정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차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범위를 세분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상실감 척도 요인들과 자아통합감 구성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죽음에 대한 수용’ 요인은 상실감 척도 요인들과 아무 상관도 보이지 않았으며, ‘죽음에 대한 수용’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 분석에서도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죽음에 대한 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자아통합감 구성 요인들이 상실감 척도의 요인들과 어느 정도의 상관을 보인 사실과, 중다회귀분석에서도 여러 유의한 결과들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 가지 가능한 가설은 이와 같은 결과가 고령자의 오랜 생활경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다양한 생활경험을 하게 마련이며, 그 가운데는

주변인들의 죽음을 경험한 사실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경험에 의해 고령자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만 하는 것이며 곧 자신과도 관련이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지영과 이가옥(2004)의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연구 결과에서도, 건강하고 자신이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60~70대의 노인들은 죽음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거나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노화현상을 절감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죽음을 자신과 매우 가까운 일로 여기며 죽음을 ‘끝’이 아닌 ‘삶’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상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며, 상실감을 느끼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실사건을 경험했다하더라도 모두 상실감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실 사건에 대해 정리되지 못한 감정을 지니고 있을 때 이 ‘해결되지 않은 상실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James, Friedman & Lesile, 2004). 고령자들의 경우 청년이나 중년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므로 그만큼 적응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상실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자들에게 있어서 정리되지 못한 상실감의 반복은 Erikson(1963)이 주장한 인생주기의 8단계의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달 과업인 ‘자아통합감의 달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특히 삶의 마지막 단계를 살아가는 고령자에게 있어 ‘상실’이란 불쾌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경험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네 가지의 상실경험은 고령자들이 보편적

으로 겪게 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들을 고령자들이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나아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작은 표본 크기로 인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변인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례를 포함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변인에 어떤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는지 요인가능성을 살펴보고, 자아통합감 이외의 다른 변인들과 고령자 상실감간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애순 (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순 (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 31-50.
- 김태현, 김동배, 김미혜, 이영진, 김애순 (1999).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회지, 19(1), 61-81.
- 노유자, 한성숙, 김춘길, 안성희, (1994). 호스피스와 죽음. 서울: 현문사.
- 박선아 (1997). 노인 정신질환자의 상실감 회복을 위한 무용요법. 대한무용학회논문집. 20. 71-89.
- 박영신, 김의철 (2006). 한국 사회와 개인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탐구: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와 낮추는 요소에 대한 세대별 지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 지: 사회문제, 12(1), 161~195.
- 서경현 (2006). 고령화 사회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1), 161-195.
- 윤진 (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신숙, 이경주 (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1), 1-20.
- 이주일, 정지원, 이정미 (2006). 미국거주 한인 노인과 국내노인 간 행복감의 차이 및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169-203.
- 이지영, 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회지, 24(2), 193-215.
- 장성옥, 공은숙, 김귀분, 김남초, 김주희, 김춘길, 김희경, 송미순, 안수연, 이경자, 이영휘, 전시자, 조남옥, 조명옥, 최경숙 (2004).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4(7), 1172-1183.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통계청 (2006). 2006 고령자 통계.
- 한덕웅 (2006). 한국 문화에서 주관안녕에 관련된 사회심리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45-79.
- 한창수 (2005). 한국 노인의 우울 증상과 행복. 2005년도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47-59.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22(3), 245-25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Company.
- Ferszt, G. G. & Leveillee, M. (2006). How do you distinguish between grief and depression?. *Nursing*, 36(9), 60-61.
- James, J. W. & Friedman, R. (2004). 슬픔이 내게 말을 거네 [*Grief Recovery Handbook*]. (장석훈 역). 경기: (주)북하우스.
- James, J. W., Friedman, R. & Lesile, M. L. (2004). 우리 아이가 슬퍼할 때 [*WHEN CHILDREN GRIEVE*]. (홍현숙 역). 경기: (주)북하우스.
- Levinson, D. (1996).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The seasons of a man's life*]. (김애순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전은 1978에 출판).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for mental health practitioner*, 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 차 원고 접수일 : 2006. 12. 11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3. 3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ef of Loss and the Sense of Ego-Integrity of the elderly

Hu Kyung Kim

Soon Chul Lee

Ju Seok Oh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University

The word “Loss” means being deprived a person's meaningful property, people or idea by irresistible force, and it is not avoidable in one's life. Especially, the elderly have higher possibility to experience this “Loss” than any other age groups on account of their characteristics. Feeling grief of loss after going through any kind of loss is natural and normal. However, if someone has severe trouble with overcoming this grief, it would affect negatively to his/her psychological or social inelastic. Therefore, we tried to find out which factors consists the “Grief of loss” and how it affects on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especially on the sense of ego-integrity through this study. 97 of the elderly over age 65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the results as follow; grief of loss i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economical loss’, ‘loss from being parted by death’, ‘loss of physical functions’ and ‘loss of relations’. These four factors of “Grief of los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scores of the sense of ego-integrity factors except ‘acceptance of death’. Especially, the ‘economical loss’ affects on every factor of the sense of ego-integrity negatively except ‘acceptance of death’ and ‘acceptance of aging’. Moreover, ‘loss of physical functions’ and ‘loss of relations’ affect negatively on elderly's satisfaction to their lives. On the other hand, the ‘loss from being parted by death’ of “Grief of loss” and ‘acceptance of death’ of the sense of ego-integrity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n every process of analysis.

Key words : the elderly, the grief of loss, the sense of ego-integrity